

음악 단체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조사*

양 종 모**

이 연구는 음악 단체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인성의 요인을 추출하고, 음악 단체 활동을 하는 학교를 선정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음악 단체 활동은 합창, 오케스트라, 밴드, 뮤지컬 등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은 전국에 음악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한 학교 중 8개 학교를 무선표집하고, 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589명과 학부모 454명으로 하였다. 인성의 주요인은 선행 연구를 통해 성취감, 자아 존중감, 사회성 등 세 가지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학생들과 학부모 70%이상은 음악 단체 활동이 인성과 관련된 모든 변인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음악 단체 활동은 세 가지 인성 요인 중 사회성에 가장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악 단체 활동의 종류에 따라 인성에 대한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보다 인성의 효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례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1. 인성의 의미와 요인
 - 2. 음악의 인성에 대한 영향
 - 3. 음악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 III. 연구 방법
 - 1. 설문 조사 대상
 - 2. 연구 도구
 - 3. 분석 내용과 방법
- IV. 참여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조사
 - 1. 음악 단체 활동에 참여 동기
 - 2. 성취감
 - 3. 자아 존중감
 - 4. 사회성에 대한 인식
 - 5. 활동 종류별 인성 요인에 대한 효과
- V. 결 론

* 이 논문은 2012년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jmyang@bnue.ac.kr

I. 서론

플라톤과 공자는 좋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 좋은 음악적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고, 루소는 인간의 완성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음악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듀이 역시 교육에서 예술을 통한 미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다. 많은 선각자들이 음악은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선각자의 언급들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김명환과 한길환(2011)은 합창 활동이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소년원 학생들의 합창 활동 후기에서 찾아 분석해 내었으며, 오상규와 김원중(2007)은 여러 가지 음악 활동이 여러 가지 인성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사를 통해 찾아내었다. 그리고 서이화(2006)는 피아노 교육의 인성에 대한 효과를 설문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피아노 학습이 정서, 표현력, 집중력에 도움이 되지만 학생들의 사교성이나 자신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윤숙(2002)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의 행동 조절에 음악 치료가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 발견해 내었다.

음악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철인들의 주장 혹은 가설에서 출발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과학적 연구 과정을 거쳐 증명되고 있다. 지금까지 합창, 음악 인성 프로그램,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는 증거를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음악 활동의 의미나 가치는 연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오케스트라, 밴드, 뮤지컬 등의 활동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음악 활동에 지원이 늘리고 있는데(박지현, 2012. 10), 이들 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음악 활동은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활동이다. 이런 활동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음악 활동이 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세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음악 활동

중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는 합창, 오케스트라, 밴드, 뮤지컬 등 단체로 하는 음악 활동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그 가치를 조사하고자 한다. 합창, 오케스트라, 밴드, 뮤지컬 등은 모두 음악 단체 활동이지만 재료가 다르고, 음악적 성격이나 활동 방식도 다르다. 이에 따라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알아 보려고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전국에서 합창, 오케스트라, 밴드, 뮤지컬 활동을 하는 학교를 선정하고, 그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조사는 인성의 요인들로 구성하였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응답 빈도를 통해 그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인성의 의미와 요인

인성은 국어사전에 “사람의 성품(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혹은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고 하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되어 진 것 즉 인간의 본성이나 천성”이라고 설명한다(네이버 사전). 인성은 그 자체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행동이나 말, 혹은 표정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다. 그래서 사람이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한다.

인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성의 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종옥(2010, 72-73)은 존엄성, 정서, 개성, 공동체 의식 등 네 가지를 인성의 기본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남궁달화(2010, 397)는 가치, 정서, 도덕 세 가지를 꼽고 있으며, 가치는 자아실현을 위한 것으로, 정서는 마음의 발달을 위한 것으로, 또 도덕은 더불어 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모든 정서를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 존엄성(우종옥)을 가치(남궁달화)라는 용어를 써서 개인적 존재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나 더불어 사는 도덕

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유아 교육자 알리키(2002)는 인성 교육을 감정과 예의로 구분하는데, 감정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용기를 가지며, 감정을 나누고 배려심을 가지는 것 등을 의미하고, 예의는 인사를 하고 공손하게 말하며,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욕심을 자제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알리키는 인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여기에는 아름다움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와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의, 배려, 봉사 정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용기와 같이 존엄성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성의 요소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다양하다. 정범모(1994)는 인성의 요소를 사회성, 성취성,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자율성, 사려성 등 8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이규형(2002)은 인내성, 집중력, 침착성, 자신감, 자아존중감, 리더십, 공경심 및 예절 등 7가지를, 오경준(2000)은 근면성, 책임감, 준법성, 자주성, 협동성 등 5가지를, 전재선(2011)은 인간애, 긍정적인 자아 개념, 사회관계, 직무 수행, 창의인성 등 5가지를, 유경재, 한윤영, 하주현(2011)은 호기심, 과제집착, 독립성, 위험감수, 사고의 개방성, 심미성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인성의 요소가 제각각이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인성의 요소는 제각각이나 개인에 대한 부분, 사회에 관한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개인에 대한 부분으로(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개념, 자신감, 자주성, 독립성, 자의식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사회에 관한 부분은 사려성, 협동성, 준법성, 사회관계, 사고 개방성, 친구들과의 소통, 사교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성취감과 관련한 성취성, 근면성, 책임감, 직무 수행, 과제집착, 성취감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음악의 인성에 대한 영향

음악이 인성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은 기원전 그리스와 중국에서부터 발견된다. 플라톤(Plato, BC 428-348)과 아리스토텔레스, 공자(BC 551-479)

등은 음악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음악이 조금만 그 질서로부터 벗어나도 인간의 정서를 타락시킬 수 있고, 이런 믿음을 근거로 하여 예술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열과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크라테스: 음악적 수련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일세. 리듬과 하모니가 정신의 내부로 파고들어가서 우아함을 심어주기 때문이네. 그것은 교육을 올바르게 받은 사람의 정신을 더욱 우아하게 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의 정신도 우아하게 할 수 있네(플라톤, 2009, 126).”

플라톤은 음악적 수련을 강조하면서 음악의 중요한 요소인 리듬과 하모니가 정신에 작동하고 그것이 우아함이라는 인간의 고상한 정신을 만들어 준다고 말한다. 그는 특정 음악이 특정 정신을 만든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좋은 음악이 좋은 인간을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음악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작동한다고 한다. 음악은 교육 받지 않은 사람도 느낄 수 있으며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플라톤은 선한 음악이 있으면 그 반대인 해로운 음악도 있다고 했으며, 해로운 음악은 번잡한 음의 결합, 복잡한 음계들, 잡다한 리듬의 배합 등의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플라톤은 인간의 지성적인 면이 아닌 감성을 습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음악은 인간의 성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윤리적 가치를 가졌을 때만 허락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플라톤은 음악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선한 인성을 만드는 음악과 그렇지 않은 음악이 존재하며, 교육에서는 선한 인성을 만드는 음악을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플라톤, 2009, 122-124).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는 그의 저서 ‘정치학’에서 “음악은 이상적인 국가를 위해 반드시 교육해야 하는 중요한 과목 중 하나”

라고 강조하면서 “음악은 도덕적 성격 형성에 특별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한 유희적 기능도 있다.”고 말한다(아리스토텔레스, 2009).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의 목적이 음악이나 음악가가 되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을 완성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좋은 선법의 음악이 좋은 영혼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악을 가려서 즐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 음악은 청소년들이 거리를 방황하는 것을 막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아울로스(관악기)가 인간 영혼을 순화시키는 데 부적절함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인성 교육을 위해 음악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공자는 “예(禮)와 악(樂)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나 교육상으로 중요한 것이니 잠깐만이라도 몸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이상은, 1992, 421), 인격 도야에 의한 인간 완성의 최고 방편으로 악을 말하고 있다. 시에서 얻은 풍부한 감흥을 예로써 다듬고 악(樂)의 화(和)를 얻어 인간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이렇듯 예(禮)와 악(樂)은 인격 완성을 원하는 개인에 있어서나, 그리고 화평하며 질서 있는 인간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나 위대한 효용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플라톤, 공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음악 혹은 선법이 인간 영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인성에 좋은 음악과 그렇지 않은 음악이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혜강(223-262)은 유가에서 음악을 인간을 교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 그것을 음악 예술의 표준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는 소리와 그 소리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의미, 즉 감정이나 인륜, 도덕적 내용을 엄격히 분리하고, 소리와 그 의미를 전혀 다른 것으로 구분한다. 그는 소리 자체가 갖는 감성적 의미보다는 고유의 심미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였다(혜강, 2002, 12-13).

“무릇 지방이 다르고 풍속이 다르면 노래의 양식과 곡읍의 양태 또한 다릅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방을 바꿔 가와 곡을 들려 주면 즐거운 노랫소리를 듣고 슬퍼하는 예도 있고, 슬픈 곡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즐거움의 감정 자체는 어느 지방이나 같은 것이지요. 이렇듯, 동일한 하나의

감정이 만 갈래의 소리로 발해지니, 이것은 음성에 일정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음악은 청자의 상태나 관점에 따라 다른 감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리에 애락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혜강, 2002, 23). 플라톤, 공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정한 정서를 느끼게 하는 음악이 있다고 보았지만 혜강은 음악의 절대성은 소리 자체에 있으며,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상대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악학궤범에서도 음악에 고유한 감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그 느끼는 마음이 같지 않음으로 해서 소리 또한 같지 않다. 즉 (같은 소리라도) 기쁜 마음으로 느끼면 그 소리는 활짝 피어 흩어지고, 성난 마음으로 느끼면 그 소리는 거칠어 억세고, 슬픈 마음으로 느끼면 그 소리는 슬퍼지고, 화락한 마음으로 느끼면 그 소리는 활짝 피어 느긋하다(악학궤범 권1 1a, 장사훈, 1982, vii 재인용).

인간은 음악을 통해 감정을 느낀다. 혜강 말대로 음악을 통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느끼는 감정은 있을 수 없지만,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분명하다. 인간은 음악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 다양한 감정의 느낌은 인간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추억을 회상하게 하며, 소리에 집중하게 하는 등 다양한 교육적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음악 활동은 끈기와 집념을 가지게 하고, 자제력을 학습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팀워크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한다(하버마이어, 2005, 107-120). 음악은 인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요소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3. 음악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최근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음악 활동이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김명한, 한길환(2011)의 연구는 소년

원 학교에서 합창 활동이 인성 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했는데, 플라톤이 말한 “합창은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좋은 것과 고상한 것을 강화시켜주는 성스러운 일”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면서 소년원의 합창 활동을 추진하였다.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소감을 적은 글을 통해 합창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합창 활동이 자신들에게 자신감, 자의식, 성취감, 미적 경험, 인내, 친구들과의 소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상규, 김원중(2007)은 노래 부르기, 음악 감상, 악기 연주 활동, 즉흥 연주 등의 음악 활동을 포함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10회 적용하고, 사전 검사와 매일 검사 그리고 추후 검사를 실시하여 그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사회성과 교우관계의 하위 영역 중 협동적 인간관계, 사회적 조망수용 능력의 향상이 보였으며, 대인 불안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대인불안의 감소 등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화(2006)는 피아노 교육이 음악교과와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 시절에 피아노를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인성에 대한 결과는 피아노 교육이 학생들의 정서, 표현력,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반면, 학생들의 사교성과 자신감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아노 교육을 받은 기간이 긴 학생일수록 피아노 교육이 본인의 정서, 표현력, 집중력, 사교성, 자신감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음악 활동인 피아노 교육은 인성의 주요 요소인 사회성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약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김윤숙(2002)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행동조절에 미치는 음악치료의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 소재의 한 소아정신과 입원환자 중에서, 10세~13세의 ADHD 진단을 받고 비행을 동반하는 아동 3명을 대상으로 2002년 2월부터 4월에 걸쳐, 매주 2회 30분, 사례별로 12회씩 총 36회의 개별 음악치료를 하였다. 연구 방법은 양적, 질적 연구를 활용하였으며, 음악치료의 프로그램은 사례별 아동의 매 회기

반응과 특성에 따라 동작과 이완, 건반악기 배우기, 즉흥연주, 음악 감상과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Sing along), 가사 만들기 중에서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는 사전 사후 한국판 인성검사(KPI-C)에서 A와 B의 사례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C의 사례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음악 활동이 인성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사회성, 협동적 인간관계, 정서적 안정, 자신감, 자의식, 성취감 등 다양한 요소를 조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의 연구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찾지 못하는 것도 있다. 특히 개인적인 음악 활동은 사회성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함께 하는 활동 즉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활동은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음악 활동이 인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으나, 각 연구들은 인성의 개념을 다르게 보고, 연구 방법도 각각이다.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은 음악 활동이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피아노와 같이 개인 악기를 배우는 경우 인성의 요인 중 사회성에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음악 단체 활동은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보여 준다.

역시 모든 음악 활동이 인성 교육의 모든 요인에 긍정적이지는 않다. 요인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또 음악 활동에 따라 다른 경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인성의 요인별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음악 활동에 대한 효과 연구도 요구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설문 조사 대상

이 연구는 음악 단체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효과를 조사하였다. 음악 단체 활동은 단체로 음악 활동을 하는 합창, 오케스트라, 밴드,

뮤지컬 등 4가지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단체를 선정할 때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전국에서 우수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 단체로 하며, 4개 종목에 각각 2개씩 총 8개 단체를 선정한다. 둘째, 5년 이상 연 10회 이상 공연 활동을 펼쳐온 단체를 선정한다. 셋째, 단원 수가 30명 이상인 단체를 선정한다. 단, 뮤지컬과 밴드는 연주 특성 상 30명 이하인 경우도 포함시킨다. 넷째, 국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단체로 한다. 학교가 자체의 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지속성이 있으며, 자발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학교들 중 무선표집하여 단체를 선정하였다.

<표 1> 설문지 배포수와 회수율

종류	학교명(지역)	학교급	배포(명)		회수(명)	회수율 (%)
합창단	A초등학교(부산)	초등	학생	40	37	92.5
			학부모	40	39	97.5
	B여자고등학교(서울)	중등	학생	50	28	56
			학부모	50	16	32
오케스트라	C초등학교(서울)	초등	학생	66	51	77.3
			학부모	66	52	78.8
	D부산중고등학교(부산)	중등	학생	90	87	96.7
			*학부모	.	.	.
밴드	E초등학교(경남 거제)	초등	학생	13	13	100
			학부모	13	13	100
	F고등학교(서울)	중등	학생	15	11	73.3
			학부모	16	16	100
뮤지컬	G초등학교(원주시)	초등	학생	30	26	86.7
			학부모	20	20	100
	H고등학교(삼척시)	중등	학생	40	22	55
			학부모	40	23	57.5
합계				589	454	77.1

* D중학교는 청소년 보호시설의 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설문을 받을 수 없었다.

8개 학교 중 7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를 모두 설문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D중학교는 학생 보호 시설의 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설문을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한 개의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인식을 비교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D학교는 학생들의 기량이 우수하여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한 단체로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선정된 전체 연구 대상은 8개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589명이고, 회수된 수는 454명으로 회수율이 77.1%였다.

2. 연구 도구

이 연구는 음악 단체 활동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에 관한 인식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문지는 인성에 대한 효과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성에 대한 효과에 대한 문항을 만들기 위해 선행 연구를 참조하였다.

2장 1절에 언급한 대로,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인성의 요인은 제각각이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부분, 사회에 관한 부분, 그리고 성취감 등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개인에 대한 부분은 자아개념, 자신감, 자주성, 독립성, 자의식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사회에 관한 부분은 사려성, 협동성, 준법성, 사회관계, 사고 개방성, 친구들과의 소통, 사교성 등을, 그리고 성취감과 관련한 성취성, 근면성, 책임감, 직무 수행, 과제집착, 성취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선행연구를 조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음악 활동과 관련한 인성의 주요인을 성취감, 자아 존중감, 그리고 사회성 3가지로 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항을 참조하여 음악 단체 활동의 영향과 관련 있는 내용을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성취감에는 자기 표현력, 자기 계획력, 도전 정신을, 자아 존중감에는 자긍심, 자기인식, 자기문제 해결력을, 그리고 사회성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 다른 사람 이해, 함께 일하기 등에 대해 하위 요인에 대한 문항을 만들었다.

각 문항은 인성의 개념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다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성취감의 하위 요인인 표현력은 “표현력”이 높은지 낮은지로 묻지 않고, “내 생각과 의견을 잘 표현하게 되었다.”로 하여 좀 더 쉽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성의 요인에 대한 문항의 내용을 다음 표와 같다.

<표 2> 인성의 요인과 문항 내용

인성의 요인	하위 요인과 문항
성취감	• 표현력: 내 생각과 의견을 잘 표현하게 되었다. • 문제 해결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도전정신: 매사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아 존중감	• 자긍심: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 자기인식: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 계획력: 내가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한다.
사회성	• 참여도: 함께 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다. • 타인 존중: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었다. • 배려심: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3. 분석 내용과 방법

분석은 1차적으로 인성의 하위 요인별로 분석한다. 각 요인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의 응답을 분석한다. 그리고 하나의 요인에 대해 합창, 오케스트라, 밴드, 뮤지컬 각 활동들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즉 음악 단체 활동이 여러 가지 인성의 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합창, 오케스트라 등의 개별 종목에 대한 효과의 차이도 분석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향성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응답 차이도 분석한다. 이 연구가 음악 단체 활동의 효과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음악 단체 활동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성을 이해하는 정도에서 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IV. 참여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조사

1. 음악 단체 활동에 참여 동기

음악 단체 활동에 참여한 동기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음악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가 113명(41.9%)로 가장 수가 많은 1위였으며,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작했다는 응답이 2위로 48명(17.8%)이었다.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라고 답한 학생이 3위로 25명(9.3%)이었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라는 응답이 9명(3.3%)으로 4위였다. 학생들은 음악적 소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인성에 대해 비교적 높게 응답하고 있다. 음악을 전공에 대해서는 3위로 비교적 낮다.

이 문항에 대해 활동 종류에 따라 순위가 달라진다.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전체 순위와 일치하는데, 합창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1위와 2위는 동일하지만 ‘친구를 사귀기 위해’가 3위,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가 4위로 응답하여 음악 전공을 가장 낮게 응답하고 있어,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합창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밴드는 ‘음악 전공하기’에 2위를 두어 밴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음악적 전공 욕구가 다른 활동보다 강하는 점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음악 단체 활동을 하는 동기로 “음악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를 가장 우선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활동 종류에 따라 2, 3, 4위의 순위가 약간 바뀐다. 여기에서는 많은 학생들은 음악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연주 경험을 가지고 연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음을 보여 준다. 특이할 점은 밴드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음악 전공에 대한 의지가 다른 영역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합창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음악 전공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표 3> 음악 단체 활동 참가 동기(학생)

활동 종류	음악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인성 함양을 위해	기타
합창	25(41.7)	1(1.7)	3(5.0)	5(8.3)	26(43.3)
오케스트라	61(44.9)	13(9.6)	4(2.9)	26(19.1)	32(23.5)
밴드	16(66.7)	4(16.7)	0(0)	1(4.2)	3(12.5)
뮤지컬	11(22.9)	7(14.6)	2(4.2)	15(31.3)	13(27.1)
전체(%)	113(42.2)	25(9.3)	9(3.4)	47(17.5)	74(27.6)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음악 단체 활동에 참여시키는 동기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에 122명(68.5%)으로 1위로 응답하였으며, ‘음악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에 39명(21.9%)으로 2위로 응답하였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합창, 오케스트라, 밴드, 뮤지컬이 모두 같은 순위를 유지하였다.

학생들은 참가 동기를 음악적 소양을 기르는 것에 우선적인 의미를 두었는데, 학부모들은 ‘사회성 및 인성 함양’에 우선을 두어 서로 동기가 다름을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음악적 소양에 의미를 두고,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인성이라는 보다 인간 교육에 더한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음악 단체 활동 참가 동기(학부모)

활동 종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음악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친구를 사귀기 위해	기타
합창	38(69.1)	11(20.0)	5(9.1)	1(1.8)
오케스트라	37(71.2)	8(15.4)	6(11.5)	1(1.9)
밴드	16(57.1)	10(35.7)	2(7.1)	0(0)
뮤지컬	31(72.1)	10(23.3)	1(2.3)	1(2.3)
전체(%)	122(68.5)	39(21.9)	14(7.9)	3(1.7)

2. 성취감

1) 표현력

음악 단체 활동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생각과 의견을 잘 표현하게 하게 되었다”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그렇다’에 125(45.5%)명이 응답했고, ‘매우 그렇다’에 71명(25.8%)이 응답했다.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이 전체 71.3%이다. 이는 상당히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음악 활동을 한 후에 스스로의 생각과 의견을 잘 표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활동 종류별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은 밴드가 79.2%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뮤지컬로 75.0%,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73.2%로 세 번째 합창이 61.6%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음악 단체 활동은 생각이나 의견을 잘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 종류별로는 밴드와 뮤지컬이 오케스트라나 합창보다 생각과 의견을 더 잘 표현하게 해 준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표현을 강조하는 밴드와 뮤지컬이 전체 음악의 조화를 중시하는 오케스트라나 합창보다는 표현력의 발달에 더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학부모는 ‘그렇다’ 이상에 78.5%가 응답했다. 학생들(71.3%)보다 학부모가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활동 종류별로는 오케스트라가 ‘그렇다’ 이상에 90.4%가 응답했고, 밴드가 86.2%, 합창이 70.3%, 뮤지컬은 68.3% 순서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밴드에 학부모는 오케스트라가 표현력을 높이는 데 더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여 인식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음악 단체 활동이 표현하기에 영향을 준다는 질문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그렇다’ 이상에 높은 비율로 호응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부모는 학생들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그리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9%-30.8%로 그 폭이 크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거나 아주 소수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음악 단체 활동이 생각 표현하기

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5> '내 생각과 의견을 잘 표현하게 되었다.'에 대한 응답

설문 대상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합창	15(23.1)	25(38.5)	20(30.8)	3(4.6)	2(3.1)
	오케스트라	42(30.4)	59(42.8)	32(23.2)	4(2.9)	1(.7)
	밴드	4(16.7)	15(62.5)	5(20.8)	0(0.)	0(0.)
	뮤지컬	10(20.8)	26(54.2)	10(20.8)	2(4.2)	0(0.)
	전체	71(25.8)	125(45.5)	67(24.4)	9(3.3)	3(1.1)
학부 모	합창	14(25.9)	24(44.4)	15(27.8)	1(1.9)	0(0.)
	오케스트라	11(21.2)	36(69.2)	5(9.6)	0(0.)	0(0.)
	밴드	8(27.6)	17(58.6)	2(6.9)	2(6.9)	0(0.)
	뮤지컬	6(14.6)	22(53.7)	11(26.8)	2(4.9)	0(0.)
	전체	39(22.2)	99(56.3)	33(18.8)	5(2.8)	0(0.)

2)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력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그렇다'에 125(45.5%)명이 응답했고, '매우 그렇다'에 67명(24.4%)이 응답했다.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은 전체 69.9%이다. 그리고 활동 종류별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은 오케스트라가 가장 높고, 합창이 두 번째, 뮤지컬이 세 번째, 밴드가 네 번째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음악 단체 활동이 자기 문제 해결력에 주는 효과에 대해 학생들은 '그렇다' 이상에 높은 비율로 호응하고 있다. 음악 단체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생길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음악 단체 활동은 많은 학생들이 함께 연습하고 공연하며, 각자 맡은 악기를 간수해야 하고, 자신의 자리를 잡아야 하고, 자신이 맡은 파트를 잘 연주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일에 대한 범위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 갈 수 있을 것이다.

<표 6>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에 대한 응답

설문 대상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합창	12(18.5)	32(49.2)	18(27.7)	2(3.1)	1(1.5)
	오케스트라	38(27.5)	64(46.4)	32(23.2)	3(2.2)	1(.7)
	밴드	5(20.8)	9(37.5)	9(37.5)	1(4.2)	0(.0)
	뮤지컬	12(25.0)	20(41.7)	15(31.3)	1(2.1)	0(.0)
	전체	67(24.4)	125(45.5)	74(26.9)	7(2.5)	2(.7)

3) 도전 정신

도전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 '매사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었다.'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그렇다'에 123(44.7%)명이 응답했고, '매우 그렇다'에 68명(24.7%)이 응답했다.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은 전체 69.4%이다. 그리고 활동 종류별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은 밴드가 75%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오케스트라 69.6%, 세 번째는 뮤지컬 68.7%, 네 번째는 합창 67.7%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학부모는 '그렇다' 이상에 68.2%가 응답했다. 학생들이(69.4%)이 학부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활동 종류별로는 오케스트라가 '그렇다' 이상에 73.1%를 응답했고, 밴드가 72.4%, 뮤지컬이 65.9%, 합창이 62.0% 순서로 학생들의 응답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음악 단체 활동이 도전 정신에 영향을 준다는 질문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그렇다' 이상에 높은 비율로 호응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생이 학부모보다는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리고 활동 종류별로는 학생은 밴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학부모는 오케스트라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표 7> '매사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었다.'에 대한 응답

설문 대상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합창	17(26.2)	27(41.5)	18(27.7)	2(3.1)	1(1.5)
	오케스트라	37(26.8)	59(42.8)	35(25.4)	6(4.3)	1(.7)
	밴드	3(12.5)	15(62.5)	6(25.0)	0(0)	0(0)
	뮤지컬	11(22.9)	22(45.8)	15(31.3)	0(0)	0(0)
	전체	68(24.7)	123(44.7)	74(26.9)	8(2.9)	2(0.7)
학부모	합창	6(11.1)	28(51.9)	18(33.3)	1(1.9)	1(1.9)
	오케스트라	13(25.0)	25(48.1)	13(25.0)	1(1.9)	0(0)
	밴드	6(20.7)	15(51.7)	6(20.7)	2(6.9)	0(0)
	뮤지컬	7(17.1)	20(48.8)	11(26.8)	3(7.3)	0(0)
	전체	32(18.2)	88(50.0)	48(27.3)	7(4.0)	1(0.6)

3. 자아 존중감

1) 자긍심

자긍심을 이해하기 위해 '나 자신(자녀)이/가 자랑스럽게 되었다.'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그렇다'에 110(40.0%)명이 응답했고, '매우 그렇다'에 89명(32.4%)이 응답했다.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은 전체 72.4%이다. 그리고 활동 종류별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은 오케스트라가 가장 높고, 뮤지컬이 두 번째, 밴드가 세 번째, 합창이 네 번째로 나타났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학부모는 '그렇다' 이상에 85.2%가 응답했다. 학부모가 학생들보다 자긍심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활동 종류별로는 오케스트라가 가장 높고, 밴드가 두 번째, 합창이 세 번째, 뮤지컬이 네 번째로 학생들의 응답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음악 단체 활동의 자긍심에 대한 영향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그렇다' 이상에 높은 비율로 호응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부모가 학생보다는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활동 종류별로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긍심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표 8> '나 자신(자녀)이/가 자랑스럽게 되었다.'에 대한 응답

설문 대상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합창	16(24.6)	25(38.5)	19(29.2)	3(4.6)	2(3.1)
	오케스트라	47(34.1)	58(42.0)	30(21.7)	1(.7)	2(1.4)
	밴드	7(29.2)	10(41.7)	6(25.0)	1(4.2)	0(0.0)
	뮤지컬	19(39.6)	17(35.4)	11(22.9)	1(2.1)	0(0.0)
	전체	89(32.4)	110(40.0)	66(24.0)	6(2.2)	4(1.5)
학부모	합창	16(29.6)	26(48.1)	11(20.4)	1(1.9)	0(0.0)
	오케스트라	25(48.1)	26(50.0)	1(1.9)	0(0.0)	0(0.0)
	밴드	9(31.0)	17(58.6)	2(6.9)	1(3.4)	0(0.0)
	뮤지컬	12(29.3)	19(46.3)	8(19.5)	2(4.9)	0(0.0)
	전체	62(35.2)	88(50.0)	22(12.5)	4(2.3)	0(0.0)

2) 자기 인식

자기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은 학생 개인적 인식을 묻기 위해 학부모 문항은 만들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그렇다'에 113(41.1%)명이 응답했고, '매우 그렇다'에 73명(26.5%)이 응답했다.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은 전체 67.6%이다. 그리고 활동 종류별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은 밴드가 가장 높고, 뮤지컬이 두 번째, 오케스트라가 세 번째, 합창이 네 번째로 나타났다.

음악 단체 활동의 자기 인식에 대한 영향에 대해 학생들은 '그렇다' 이상에 높은 비율로 호응하고 있다. 음악 단체 활동은 음악을 표현하고 여러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며, 자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될 것이다.

<표 9>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에 대한 응답

설문 대상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합창	17(26.2)	23(35.4)	18(27.7)	6(9.2)	1(1.5)
	오케스트라	36(26.1)	53(38.4)	43(31.2)	4(2.9)	2(1.4)
	밴드	4(16.7)	16(66.7)	3(12.5)	1(4.2)	0(0.)
	뮤지컬	16(33.3)	21(43.8)	11(22.9)	0(0.)	0(0.)
	전체	73(26.5)	113(41.1)	75(27.3)	11(4.0)	3(1.1)

3) 계획력

자기 계획력을 이해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하게 되었다.'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그렇다'에 101(36.7%)명이 응답했고, '매우 그렇다'에 81명(29.5%)이 응답했다.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이 전체 66.2%이다. 이는 상당히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음악 활동을 한 후에 할 일은 스스로 계획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활동 종류별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은 오케스트라가 72.5%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밴드로 62.5%, 그리고 합창이 60%로 세 번째, 뮤지컬은 58.4%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학부모는 '그렇다' 이상에 60.3%가 응답했다. 학부모가 학생들(66.2%)보다 계획력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활동 종류별로는 밴드가 '그렇다' 이상에 68.9%가 응답했고, 합창이 64.8%, 오케스트라가 63.4%, 뮤지컬은 56.1%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활동에 학부모는 합창 활동에 더 가중치를 두고 있다.

음악 단체 활동이 자기 계획력에 관한 영향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그렇다' 이상에 높은 비율로 호응하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부모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그리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23.9%-39.6%로 나타나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이하이다. 이는 대다수가 음악 단체 활동이 자기 계획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10> '내가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하게 되었다.'에 대한 응답

설문 대상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합창	17(26.2)	22(33.8)	21(32.3)	3(4.6)	2(3.1)
	오케스트라	47(34.1)	53(38.4)	33(23.9)	4(2.9)	1(.7)
	밴드	4(16.7)	11(45.8)	6(25.0)	2(8.3)	1(4.2)
	뮤지컬	13(27.1)	15(31.3)	19(39.6)	1(2.1)	0(.0)
	전체	81(29.5)	101(36.7)	79(28.7)	10(3.6)	4(1.5)
학부모	합창	10(18.5)	25(46.3)	13(24.1)	5(9.3)	1(1.9)
	오케스트라	10(19.2)	23(44.2)	17(32.7)	2(3.8)	0(.0)
	밴드	3(10.3)	17(58.6)	7(24.1)	2(6.9)	0(.0)
	뮤지컬	4(9.8)	19(46.3)	15(36.6)	2(4.9)	1(2.4)
	전체	27(15.3)	84(47.7)	52(29.5)	11(6.3)	2(1.1)

4. 사회성에 대한 인식

1) 참여도

사회성과 관련하여 참여도를 이해하기 위해 '함께 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그렇다'에 143(52.0%)명이 응답했고, '매우 그렇다'에 92명(33.5%)이 응답했다.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은 전체 85.5%이다. 그리고 활동 종류별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은 뮤지컬이 가장 높고, 오케스트라가 두 번째, 합창이 세 번째, 밴드가 네 번째로 가장 낮았다.

음악 단체 활동이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생들은 '그렇다' 이상에 높은 비율로 호응하고 있다. 음악 단체 활동 자체가 여러 사람과 같이 음악을 활동이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경험을 하게 해 줄 것이다. 특히 음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이런 경험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일의 성격을 이해하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표 11> ‘함께 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다.’에 대한 응답

설문 대상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합창	20(30.8)	32(49.2)	12(18.5)	1(1.5)	0(0)
	오케스트라	54(39.1)	67(48.6)	15(10.9)	2(1.4)	0(0)
	밴드	4(16.7)	15(62.5)	5(20.8)	0(0)	0(0)
	뮤지컬	14(29.2)	29(60.4)	4(8.3)	1(2.1)	0(0)
	전체	92(33.5)	143(52.0)	36(13.1)	4(1.5)	0(0)

2) 타인 존중

사회성과 관련하여 타인 존중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었다.’라는 질문을 하였다. 음악 단체 활동이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그렇다’에 133(48.4%)명이 응답했고, ‘매우 그렇다’에 74명(26.9%)이 응답했다.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은 전체 75.3%이다. 그리고 활동 종류별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은 뮤지컬이 가장 높고, 오케스트라가 두 번째, 합창이 세 번째, 밴드는 네 번째로 가장 낮았다.

음악 단체 활동이 타인 존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생들은 ‘그렇다’ 이상에 높은 비율로 호응하고 있다. 음악 단체 활동 자체가 생각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다.

<표 12>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었다.’에 대한 응답

설문 대상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합창	17(26.2)	29(44.6)	16(24.6)	3(4.6)	0(0)
	오케스트라	39(28.3)	64(46.4)	33(23.9)	1(7)	1(7)
	밴드	6(25.0)	10(41.7)	8(33.3)	0(0)	0(0)
	뮤지컬	12(25.0)	30(62.5)	6(12.5)	0(0)	0(0)
	전체	74(26.9)	133(48.4)	63(22.9)	4(1.5)	1(4)

이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건디기 어렵다. 오랜 기간 같은 음악을 만드는 과정을 겪으면서 의견을 존중하는 이러한 태도가 자연스레 형성되어 갈 것이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타인 존중의 중요함을 느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배려심

사회성과 관련하여 배려심을 이해하기 위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그렇다'에 124(45.1%)명이 응답했고, '매우 그렇다'에 75명(27.3%)이 응답했다.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은 전체 72.4%이다. 그리고 활동 종류별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은 오케스트라가 가장 높고, 합창이 두 번째, 뮤지컬이 세 번째, 그리고 밴드가 네 번째로 가장 낮았다.

음악 단체 활동이 배려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생들은 '그렇다' 이상에 높은 비율로 호응하고 있다. 음악 단체 활동은 생각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좋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표 13>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에 대한 응답

설문 대상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창	20(30.8)	25(38.5)	19(29.2)	0(.0)	1(1.5)
오케스트라	41(29.7)	67(48.6)	30(21.7)	0(.0)	0(.0)
학생 밴드	4(16.7)	11(45.8)	7(29.2)	2(8.3)	0(.0)
뮤지컬	10(20.8)	21(43.8)	16(33.3)	1(2.1)	0(.0)
전체	75(27.3)	124(45.1)	72(26.2)	3(1.1)	1(.4)

5. 활동 종류별 인성 요인에 대한 효과

활동 종류별로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활동 종류별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은 합창은 66.92%, 오케스트라는 74.49%, 밴드는 71.79%, 뮤지컬은 72.69% 등이다. 순위를 보면, 오케스트라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뮤지컬이 두 번째, 그리고 밴드가 세 번째, 합창은 네 번째로 가장 낮았다. 이는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인성의 영향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합창에 참여하는 학생이 인성의 영향에 대해 가장 낮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인성의 요인별로는 사회성에 대해 75.97%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아 존중감은 69.76%, 그리고 성취감은 69.6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비율은 음악 단체 활동이 사회성을 기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말해 준다.

<표 14> 활동 종류별 인성 요인에 대한 효과

인성 요인 \ 종류		합창	오케스트라	밴드	뮤지컬	요인별 평균	합계 평균
성취감	표현력	61.6	73.2	79.2	75.0	72.25	69.69
	문제 해결력	67.5	73.9	66.7	58.3	66.60	
	도전 정신	67.7	69.5	75	68.7	70.22	
자아 존중감	자긍심	63.1	76.1	70.9	75.0	71.28	68.76
	자기인식	61.6	64.5	83.4	77.1	71.65	
	자아 존중감	60.0	72.5	62.5	58.4	63.35	
사회성	참여도	80.7	87.7	79.2	89.6	84.30	75.97
	타인 존중	70.8	74.7	66.7	87.5	74.93	
	배려심	69.3	78.3	62.5	64.6	68.68	
평균		66.92	74.49	71.79	72.69	71.47	71.47

V. 결 론

최근 다양한 형태의 음악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현재 전국에 300 개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원하고, 밴드나 뮤지컬 혹은 합창 활동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은 주로 인성과 창의성이라는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음악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인성이라는 측면에 한정하고, 음악 활동 중에서도 단체로 운영되는 합창, 오케스트라, 밴드, 그리고 뮤지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 학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를 활용하여 경향성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음악 단체 활동이 인성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음악 단체 활동은 인성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취감, 자아 존중감, 그리고 사회성 등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질문의 항목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반대라기보다는 관심의 차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음악 단체 활동을 하는 동기는 학생의 경우 음악적 소양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부모는 사회성 혹은 인성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둘째, 음악 단체 활동은 인성 요인 중 사회성에 더 높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음악 단체 활동이 성취감이나 자아 존중감에 대해 70% 미만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는데, 사회성에 대해서는 약 76%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이는 음악 단체 활동이 사회성에 더 큰 효과가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음악 활동의 종류에 따라 인성 요인에 대한 효과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긍정적인 대답이 74.49%인데, 합창에 참여하는 학생은 66.92%로 약 7%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인성의 효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합창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말해 준다.

넷째, 음악 활동의 종류에 따라 인성의 하위 요인에 대한 효과 역시 다르게 나타났다. 밴드에 참여하는 학생은 표현력에 더 높은 효과가 있다고 보았고,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학생은 자긍심에 더 높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합창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주었는데, 사회성 부분에서는 중상 이상의 위치를 점한다. 음악 활동의 종류에 따라 인성의 하위 요인에 다르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연구는 음악 단체 활동의 인성에 대한 효과를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방법으로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그 교육에 대한 효과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설명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음악 단체 활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알 수 없으며, 실제 인성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법이나 객관화 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인성의 요인은 3가지로 하고, 그 하위 요인을 각각 3가지로 두어 총 9개의 문항을 만들었는데, 인성에 대한 요인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실 선행 연구에서 인성의 요인은 연구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인 인성 요인과 어떤 활동에 따른 인성의 변화를 보는 연구들에 따라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음악 활동과 관련하여 인성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음악 활동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인성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보다 다양한 요인에 대해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참고문헌

- 김명환·한길환(2011). 합창과 인성 교육: 합창을 통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정담론, Vol. 5 No. 2, 267-292.

- 김윤숙(2002).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행동조절에 미치는 음악 치료의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서(2010). 인간성 함양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언, 21세기 교육의 큰 두 개의 축(우종옥 엮음). 교육과학사.
- 김학수, 이윤수(1975). 생활지도 진단검사.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남궁달화(2010). 인성 교육이란 무엇을 하는 것인가, 21세기 교육의 큰 두 개의 축(우종옥 엮음). 교육과학사.
- 박은미(2007). 청소년의 인성형성에 대한 음악 감상 교육의 역할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2002). 합주 활동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2012). 교육 정책적 차원에서 본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음악교육의 역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음악교육의 역할” 2012 한국음악교육협회 학술대회 논문집.
- 샬린 하버마이어(2005). 좋은 음악이 총명한 아이를 만든다(김은정 옮김). 경성라인.
- 서이화(2006). 피아노 교육이 음악교과와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아리스토텔레스(2009). 정치학(천병희 옮김). 숲.
- 알리키 브란덴베르크(2002). 알리키 인성 교육 1: 감성(정선임 그림). 미래아이.
- 오경준(2000). 자기성장 집단 상담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존중감 및 사회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상규 김원중(2007). 음악활동을 활용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사회성, 교우관계 및 대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Vol.8 No.2. 513-532.
- 우종옥(2010). 창의력 교육과 인성 교육, 21세기 교육의 큰 두 개의 축(우종옥 엮음). 교육과학사.

- 유경재, 한윤영, 하주현(2011). KEDI 창의적 인성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2(4), 217-247.
- 이규형(2002). 초등학교 아동의 태권도수련과 인성발달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은(1992). 예악의 형성과 예악사상의 역사적 전개. *동방철학사상연구*. 동방문화연구원출판부.
- 장정연(2007). 감상수업을 통한 20세기 인성음악 지도방법 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범모(1994). 초등학교용 인성검사. *코리안테스팅센터*.
- 정선임(2005). 중·고등학생의 합창 활동 효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플라톤(2009). 플라톤의 국가론(최현 옮김). *집문당*.
- 하주현(2000). 창의적 인성 검사 개발. *교육심리연구*, 14(2), 187-210.
- 혜강(2002). 성무애악론(한홍섭 옮김). *책세상*.
- 홍명수(1997). 사회적 인식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기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Research on the Impact of Group Music Activity on Personality

YANG, JongM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group music activities on personality. For this purpose, after extracting factors of personality, a survey was conducted on selected schools that had collective music activities. Chorus, orchestra, band and musical were considered as the group music activities. 8 schools out of the excellent schools in Korea that had group music activities were selected randomly, and the survey was made on 589 students and 454 parents of the students. As the major factors of personality, sense of achievement, self-worth and sociality were selected.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first, over 70% of the students and parents thought group music activities had given a positive impact on all the variables related to personality. Second, it showed that group music activities gave the most impact on sociality among the three personality factors. Third, the effectiveness on personality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collective music activities, and th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orchestra activity thought more positively for the effectiveness on personality than the students in other activities.

keywords: group music activity, personality, music education

투고일: 6월 30일, 심사(수정): 7월 12일(8월 7일), 게재확정일: 8월 14일